



스웨덴의 대학교육과 평생소득의 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박사)

■ 들어가는 말

스웨덴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서 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세금의 기반이 충분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스웨덴 시민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업보험, 질병보험, 부모보험 등등의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보험 급여의 크기는 본인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임금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3년의 경우 연령이 20세에서 64세까지인 스웨덴 시민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80%로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¹⁾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스웨덴 노동시장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 전반기의 전반적인 직업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스웨덴의 대학교육이 스웨덴인의 평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www.ekonomifakta.se(2014. 11. 28), "Fakta om jobben".

■ 스웨덴의 노동시장 현황²⁾

스웨덴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년 동안 중도우파 정부의 고용장려정책에 따라 전체 노동가능인구 중 고용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1월의 경우 고용인구가 4,441,500명이었던 반면, 2014년 1월에는 고용인구가 177,500명이 증가해 전체 고용인구는 4,619,000명을 기록하였다. 2014년 한 해만도 연령이 15세에서 74세 사이의 전체 노동가능인구 중 고용인구가 약 41,000명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노동시장을 볼 때 전국적으로 실업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1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동가능인구 중 고용센터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업자 수는 약 373,000명에 달한다. 이런 실업자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29,000명이나 적은 수치이다. 이로써 2014년 10월 말 스웨덴 전체 실업률은 7.9%인 셈이다. 2013년 10월의 실업률이 8.5%였던 것과 비교할 때 스웨덴의 실업률이 상당히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약 반년 전부터 고용센터에 등록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직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직자의 수는 감소하는 동시에 새롭게 노동시장에 등록을 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직자의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14년 10월 기준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구직자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 비교할 때 12,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동시에 약 29,000명이 고용센터에 새롭게 등록해 구직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 비교할 때 2,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전반적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0월 말에는 연령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 중 고용센터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수는 83,000명에 달한다. 2013년 10월과 비교할 때 거의 13,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2014년 10월 중 감원예고 통보를 받은 노동인구는 4,800명에 달하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 비교할 때 900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2) 스웨덴 국영고용센터(2014. 11. 11), Pressmeddelande "Fortsatt minskning av inskrivna arbetslösa".

■ 스웨덴의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일반 직업 전망³⁾

스웨덴 국영고용센터는 노동시장부 산하기관으로 구직자들에게 구직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주들을 접촉해 고용 전망을 살피기도 한다. 스웨덴 국영고용센터는 2014년 하반기를 앞두고 인구의 약 80%가 고용되어 있는 약 200개의 직업에 대해 2014년 및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보여주는 “어디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학기사, IT 전문가들의 직업 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및 판매업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 복지, 건축업 및 교육 분야에서도 신규 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구직에 성공하려면 직업 경험 또는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실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은 고등학교 교육 자격증을 꼭 취득하라는 것이다. 국영고용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구직 전망은 밝은 편이다. 특히 보건, 건설, 건축 또는 교통, 운수업 등의 분야에서 구직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3) 스웨덴 국영고용센터(2014. 6. 26), “Var finns jobben 2014 och första halvåret 2015 och en långsiktig utblick?”

■ 대학교육과 평생소득

스웨덴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구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직업의 성취도를 느끼며 생활을 영위하려면 대학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직업 생활에 따른 소득이 자신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교육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스웨덴의 전문직 종사자 노동조합(SACO)은 어떤 대학교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⁴⁾ 대학교육 수료 후 얻게 되는 직업 36개 중 12개의 직업은 대학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평생소득을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각 직업별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균 평생소득이 1,400만 크로나에 달한다고 한다.⁵⁾

SACO가 정의한 평생소득의 개념은 약간 복잡할 수 있다. 일단 스웨덴인 1인의 평생소득이 계산되는 기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85세까지의 시기로 제한하고 있다. 평생소득은 이 기간 동안 1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1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국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용자와 학비 보조금, 그리고 세금을 공제한 임금과 연금을 포함한다. 이것은 대학졸업자들이 임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지불해야 하는 학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은 제외하고, 각종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실업률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보통 5년 이내에 대학을 진학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SACO가 대학교육과 평생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전망에 따르면, 평균 39세에 이르면 대학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소득이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한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학생 용자와

4) 스웨덴 전문직 종사자 노동조합(SACO)(2014. 9. 29), Rapport "Lönsamma studier".

5) 현재 스웨덴 환율이 1크로나당 150원일 경우 21억 원 정도 된다.

학비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는 자신의 친구보다 소득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대학 졸업 후 구직에 성공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하는 친구보다 임금이 높은 직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소득이 비슷해지는 시기에 도달한다. 그 시기를 지나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보다는 소득이 높게 되는 것이다. <표 1>~<표 3>은 우선 평생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교해 높은 직업,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슷한 직업,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낮은 직업에 대해 보여 준다.

SACO에 의하면, 선별된 36개의 직업 중 24개의 직업만이 고등학교 교육보다 높은 평생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의사가 모든 직업 중 평생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이며, 전문 공학기사, 경제, 경영학 전공자, 법률학 전공자들이 전공을 살려 일하는 직업도 평생소득이 높은 편이다. 반면, 치과 위생사, 사서, 물리치료사, 교사들의 평생소득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보다도 평생소득이 낮은 편이다.

<표 1> 평생소득이 최고 수준인 직업

직업명	대학 이수학점	평생소득 (백만 크로나)	대학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제외한 후 소득이 플러스 되는 연령 (세)
의사	330	22.7	31
전문 공학기사	300	20.1	32
경제, 경영학 전공자	180	20	32
법률학 전공자	270	20	33
약사	300	19.6	34
치과의사	300	17.8	33
조직, 기업행정, 공공행정 전공자	180	17.6	34
컴퓨터전문가(소프트웨어)	180	17.3	35
컴퓨터전문가(하드웨어)	180	16.8	31
수학 및 통계 전공자	180	16.4	37
공학기사	180	16.3	30
수의과의사	180	16.3	45

〈표 2〉 평생소득이 중간 수준인 직업

직업명	대학 이수 학점	평생소득 (백만 크로나)	대학교육에 투자한 비용 제외한 후 소득이 플러스 되는 연령 (세)
농학전공자	270	15.9	47
저널리스트	240	15.7	-
사회학, 행동과학 전공자	180	15.9	51
건축가	300	15.7	50
심리학자	300	15.4	52
화학전공자	180	14.8	52
지질학전공자	180	14.7	55
신학전공자	180	14.4	63
제약사	180	14.1	64
간호사	180	14.1	69
사회복지사	210	14	84

〈표 3〉 평생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낮은 직업

직업명	대학 이수 학점	평생소득 (백만 크로나)
인문학전공자	180	13.8
생물학전공자	180	13.8
직업교사	실무경력 + 교육학 90	13.7
사회복지 전공자	180	13.5
임상학 전공자	180	13.4
물리치료사	180	13.2
실업 및 예술전문 교사	실무 경력 + 교육학 90	13.2
초등학교(1~6학년) 교사	180	13.0
치과 위생사	180	12.7
사서	180	12.7
재활치료사	180	12.8
예술전공자	180	12.5

■ 맺음말

스웨덴에서 원활한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통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임금 생활을 통해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표 1>~<표 3>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직업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도 평생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은 평생소득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삶과 더불어 직업 생활을 통해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본인의 노력과 적성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KLI**